

보성교육지원청, 해외 역사 탐방 '성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중국 내 독립운동사 이해·민족 의식 고취 모범학생·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34명 선발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근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내 독립운동사의 이해와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자 모범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34명을 선발하여 해외 역사 탐방 기회를 제공하였다.

초·중학교별 모범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초 20명, 중 14명) 34명으로 구성된 체험학습단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 상해, 남경, 항주 일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따라 선조들의 독립의지와 투쟁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였다.

이번 체험학습은 보성 모범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성군청으로부터 6천 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되었다.

2018년에는 배두산과 고구려 역사 유적을 탐방했고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내 독립운동사역지를 직접 탐방

하고자 학생, 역사 전공 교사를 포함한 인솔교원을 안정하게 선발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보성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된 사전캠프(독서토론수업, 안전교육, 중국어기초 교육 실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배경 지식을 쌓고 상호 연대 의식과 유대감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 중학교 3개 반으로 나누고 소규모 모둠을 편성하여 수준별 독서토론 수업 과제제 제작한 워크북을 적극 활용 했을 뿐만 아니라 남도야영 의회의 고장 보성의 항주의 임시정부 청사 견학 뿐 아니라 운봉길 의사 기념공원 참배, 독립만세 운동 퍼포먼스 등을 펼쳤다.

또한 현지 직업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글로벌 그룹 Alibaba 금융팀장으로 근무 중인 Jieng Shien을 초빙하여 진로상담의 시간도 병행하였다. 귀국일인 8월 15



일은 제74주년 광복절로 태극기를 손에 들고 펼쳐이며 부모님과 가정으로 향하였다. 인솔단장(예당초등학교장 구경석)은 무더위 속 강행군에 학생들의 땀은 지쳤지만 체험학습 소감을 밝히는 학생들의 말과 글, 빛나는 눈빛에서 한 단계 성장하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수확을 거두었다고 말하였다.

사후 캠프에서는 체험학습 후기를 비롯한 반별 발표물 제작, 앨범 등을 학생 주도로 완성 할 계획이다. 모범학생 해외 체험학습 최종 보고회는 8.28(수) 군청 관계자를 비롯한 체험학습단과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보성공공도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체험학습에 자녀를 맡긴 조을영(경백초 조제연 학생 부님)은 이번 체험학습 진행 과정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평하였다.

보성군청 후원 행사, 학부모 밴드 개설 및 운영, 학생, 학부모 합동 참여 사전 설명회 개최, 사전캠프 운영, 사후 캠프 및 최종 보고회까지 일관성 있는 행사추진이말로 교육을 통한 학생 성장은 물론 대내외 홍보 효과로 이어져 보성교육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주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대입설명회

광주시교육청이 21일 수요일 오후 6시,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정동 소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는 매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교육청 소속 진로진학 교사들이 대학입시 수시 지원 전략 강의와 1:1 맞춤형 대입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광주권 대학이 대학 관련 부스를 운영하여 매년 15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 유

원, 학업중단속려제, 학교 밖 청소년 문화축제 감사의 밤 후원, 대안학교 입학설명회 공동주최·주관 각종 행사 불참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대학입시 설명회 외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대학진학 멘토링, 수능 대비반, 검정고시 학습 등의 대학 입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예체능 프로그램, 직업체험(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오늘 진학전문교사 2020 대입 수시 1:1 맞춤형 상담

광주권 13개 대학 부스 참여로 역대 최대 규모 행사 예상

관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대학입시 설명회는 진학 상담교사 9명과 광주권 13개 대학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대학 : 광주대, 광주보건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서영대, 송원대, 전남대, 조선대, 조선어공대, 호남대, 동신대, 전남과학대)

입시 설명회 참가 신청은 온라인 또는 5개구에 위치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시상담은 각 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대학입시지원과 비인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

을 쌓을 수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만 18세 이하 광주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의 교통비(만 12세 이하는 3만원)를 지원하는 세상 배움카드를 이용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 외에도 대학 입시나 다양한 프로그램,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광주시교육청(062-380-4571) 또는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2-376-1324, www.flyyouth.or.k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조인호 기자



무안교육지원청, 여름방학 영어캠프 실시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 무안 외국어체험센터에서는 1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41명을 대상으로 '2019 여름방학 영어캠프(제2기)'를 실시했다.

지난 1기 캠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Topic Learning, Outdoor Activity, Cooking Class 등 다양한 영어 체험을 통해 영어의사소통 능력 및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는 주제별 활동으로 운영되었다.

영어캠프(2기)에 참여한 노건우(오룡초 5학년) 학생은 "1기 캠프에 다녀온 친구들이 너무 좋았다고 해서 기대가 많았는데 직접 와보니, 친구가 한 이야기가 사실이었다. 영어로 말하고 놀며 배울 수 있어서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안외국어체험센터는 작년 가을, 관내 초등학교 2교에 설치된 영어체험센터(구) 무안북초등학교의 리모델링을 통해 활동·이실하여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교육지원청, 지자체와 거버넌스 구축

마을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주민 참여 공개학습으로 전환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이 14일 해보면사무소에서 마을학교관계자 및 해보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습 모임을 진행했다.

함평지역 마을학교 대표자로 구성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매월 자체 학습하며 역량을 강화해 왔으나, 이번 달부터 운영방식을 면사무소와 주민 공개 토론으로 전환했다.

이는 지자체 연계의 중심점이 되는 장소·주민 참여 방식의 열린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의 밑거름이라는 학습공동체 논의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9개 읍면 단위를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지자체와의 견고한 협치와 공개 학습·토론을 통해 진행되는 이와 같은 마을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방식은 주민 합의에 의한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학습·토론은 3시간 동안 책 '로컬에듀'를 강독, 마을 특색에 맞는 마을 교육과정'과 마을학교 강사 모집 및 역량강화, 마을학교별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을의 자원과 마을의 어제·오늘·내일

을 담은 마을교과서 제작, 학생과 함께 기획하는 마을행사, 학생과 마을의 요구를 반영한 차기년도 마을학교 교육과정 준비를 협의했다.

함께 학습·토론에 참여한 니판종 해보면장은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급감하는 시점에서 마을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마을학교와 연계해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임정실 해보면 학교 교사는 "해보면은 방과 후 학생이 쉬고 놀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서 면사무소와 연계 협력을 통해 해보면은 유휴공간을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마을학교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win-win 방안을 제시했다.

박영숙 교육장은 "2020학년도 학교-마을 교육과정 연계 마을자원 박람회' 개최를 통한 질적 도약을 약속하고, '권역별 학부모회와 연계한 마을학교 강사 양성'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순천대 우주항공공학전공 로켓연구팀

로켓발사대회 대상 수상

전국 21개 대학 자작 로켓 출품...고체로켓 부문 1위



실제 발사 상황을 경쟁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고, 고체 연료로켓 부문에는 순천대 등 20개 대학이 27대의 로켓을 출품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순천대 연구팀(지도교수 우주항공공학전공 이희남)은 대회 규정에 따른 RKD-1 로켓을 제작해 전기 신호 전화와 발사, 최대 고도(약 400m)에서 내장된 컴퓨터 명령 프로그램을 통한 낙하산사출 명령, 지상에서 파손 없이 로켓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전 단계 미션을 탁월하게 수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LoRa 통신모듈 이용한 통신, 비행데이터 저장 기술 등 로켓연구 개발에 활용 가능한 순천대팀(회장 최모건, 우주항공공학전공 3학년)의 로켓 연구에는 순천대학교를 비롯해 순천시, 전남정보산업진흥원, 글루코리아 등의 지원이 있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대학교총장 고정진) 우주항공공학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로켓연구팀이 최근 항공우주연구원 고층 항공센터에서 진행된 제28회 전국대학교 로켓 발사대회에서 고체로켓부문 영예의 1위,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대학생로켓연합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고층군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순천대,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항공대 등 전국 21개 대학, 40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대회 진행은 대학생들이 연구하고 직접 제작한 로켓에 대해 논문 발표와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